

‘은둔형 외톨이’ 일상 복귀 도와드립니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전국 첫 개소 2년간 시범운영 찾기·상담·치유부터 사회생활 적응까지 관련 업무 모두 수행

‘은둔형외톨이’에게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 문을 열고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실태조사를 거쳐 광주에 은둔형외톨이가 5000명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광주시는 일단 2년간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직영화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복구 중 흥동 한 빌딩에 ‘광주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현재까지 약 2개월간 10건의 은둔형외톨이 사례를 상담·치유 중이다.

센터는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원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광주시 컨트롤타워이다.

센터에는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각종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18명의 상담사가 위촉돼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센터 업무는 사례 발굴·상담·치유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

실상 은둔형외톨이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첫 단계는 은둔형외톨이 발굴단계다. 광주시 지원조례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오는 은둔형외톨이를 찾는다. 상담은 방문·내방 모두 가능하다. 일단 상담자가 정해지면 은둔형외톨이가 맞는지 체크한다. 여기에는 19개 문항으로 된 체크리스트가 사용된다.

상담은 최소 12회 이상 이뤄지며, 필요하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상담 대상자들이 원한다면 자조모임(공동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도 계획 중이다. 상담과 치유 이후에는 사회화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실상 이 단계가 은둔형외톨이가 은둔을 깨고 외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단계다.

센터 측은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어 부족한 점도 있다면, 벌써부터 상담 대상자들이 효과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20대 A씨가 대

표적이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3년째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소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았다. 은둔을 하는 터라 집안은 쓰레기가 넘쳐났지만 꾸준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상담사와 같이 방을 치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약간의 분노조절 장애 성향도 있었지만 ‘방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미션과 ‘분노(화)를 다른 방향으로 표출하는’ 생활기술 훈련을 받은 덕분에 상담사와의 대화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식물을 길러보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백희정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은둔형외톨이를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거쳐 우리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약 5000명의 은둔형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가 2020년 광주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49명(0.35%)의 은둔형외톨이가 발굴됐다. 광주 전체 인구(143만명)를 감안하면 최소 5000명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가정 등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21일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 복귀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태조사 결과, 광주 은둔형외톨이는 대학을 졸업한 20~30대 남성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155명·44.4%)와 30대(93명·26.6%)가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41.5%(145명)를 차지했다. 은둔 생활의 계기는 취업 실패(27.8%)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26.6%)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마 끝났지만...가뭄 계속된다

댐 저수량 턱없이 부족...영산강환경청 오늘 긴급대책회의 당국 “앞으로 200~400mm 내리야 댐 수위 등 정상 회복”

장마가 끝나가는데도 계속되는 가뭄에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댐 가뭄 기준인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이 마련된 2013년 이후 주암다목적댐에 처음으로 가뭄 대응단계 중 세번째 심각단계인 ‘경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내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22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극한가뭄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청, 관련 지자체, K-water 영

섬유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가뭄대응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현재 광주시와 순천·나주·목포·화순·영광·함평·고흥·광양·보성·여수·담양·장성 등에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주암다목적댐은 저수율이 24%(1억7000만)로 지난 18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했고, 평립댐은 저수율이 39%(400만)로 지난 2일부터 가뭄 ‘주의’단계다.

다목적댐의 대응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경계’가 발령되면 저수지 등 비상 연계시설을 가동하고 농업용수 실 사용량

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30%까지 감량할 수 있다. ‘심각’ 단계에서는 생활·공업 용수를 추가로 20% 더 감량한다.

예년(댐 준공 이후 평균)대비 광주·전남 강수량이 56% 수준에 그친 상태에서 용수 사용이 급증하는 7~8월에 강우 부족이 지속될 경우 생활·공업 용수의 제한급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난 18~19일 섬진강수계에 내린 강수(69mm)에도 불구하고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어 저수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환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200~40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리야 남부지방 댐의 가뭄이 정상단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단계는 주암다목적댐의 경우 저수율 38%로 현재 9700만이 부족하고 평립댐은 저수율 65%까지 270만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가뭄상황과 기상예측을 보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주암댐은 가뭄 ‘경계’ 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학교 15곳 운동장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7곳 재설치 추진...시민단체 “친환경 운동장 강제 규정 만들어야”

광주지역 초·중·고교 15곳이 운동장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광주 초·중·고교 28곳 중 15곳이 교육부가 정한 내구연한(7~9년)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7개 학교는 인조잔디 유해성 우려에도 재설치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관리·유지 편리, 운동부 운영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지난 2016년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

련 조례를 제정,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교육청 권한으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강제 규정 없는 탓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유지되고 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인조잔디는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발생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철은 열이 높아 화상을 유발한다”며 “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과 천연잔디·마사토 등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주말 막바지 장맛비...내주부터 본격 폭염

23~24일 비 온 뒤 장마 끝

23~24일 주말 장맛비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장마가 물러갈 것으로 보인다. 장마 종료 뒤에는 불볕더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이날 예상 강우량은 곳에 따라 5~40mm가 예상된다.

토요일인 23일 오후부터 목포 등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휴일인 2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주말 비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주간 예보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인 25일부터 일요일인 31일까지 비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도 장마 시·종점에 대해 별도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주말을 끝으로 이번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주간 예보에 따르면 25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은 구름 낀 날씨와 맑은 날이 이어질 것이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22~25도, 낮 최고 기온은 29~33도가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환경단체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용역결과 즉시 공개를”

영산강·금강이 지나가는 지역 85개 시민환경단체들이 “금강·영산강 보(坎)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충청권 8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영산강 85개 시민환경단체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속히 보 해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완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가 내부 검토를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6월 말 이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담당부서인 4대강조사평가단을 6월 30일자로 해산, 통합물관리부서로 축소 이관시키면서 지금까지 목록부담인 것은 보 해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 중의 하나”고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